

광주 충장축제 등 지역 4개 축제 '최우수'

전남 보성 다향·담양 대나무·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포함 문체부 선정...정남진장흥물 우수, 영암 왕인문화 유망축제

광주 추억의충장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등 광주-전남 4개 축제가 '2019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로 광주 추억의충장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축제에는 관광진흥기금 2억원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추억의충장축제와 다향대축제는 지난해 우수축제에서 한 등급 승격, 최우수축제로 뽑혔다.

추억의충장축제는 지난해 태풍 '콩레이'의 복상에 따라 축제기간이 당초 5일에서 3일간으로 단축됐는데도 30여만명이 방문했다. 서커스와 청바지를 콘셉트로 다양한 서커스·마술쇼, 거리퍼레이드, 추억의 테마거리, 아시아음식페스티벌 열어 인기를 끌었다.

다향대축제는 해마다 5월 보성차밭 일원에서 열린다. 차 관련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산업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소비자 선정 브랜드대상 등을 받았다.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는 6년 연속, 담양 대나무

축제는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연속 우수축제로, 2014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축제는 고군면 화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의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로 길이 2.8km에 걸쳐 폭 40여m의 바닷길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열리고 있다.

담양 대나무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된데 이어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뽑혔다. 대나무의 폭발적인 성장력을 모티브로 관광객들이 담양에서 대나무의 환경적 가치를 인식하고 에너지를 얻어가는 축제라는 평이다.

우수축제에는 정남진장흥물축제, 유망축제에는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주거복지센터 신설·공기업제안형 뉴딜사업 발굴

광주도시공사 혁신방안 발표

광주도시공사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매진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하고, 공기업제안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재생전문 공기업으로의 도약 ▲광주다운 주거복지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공간창조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실현 등 5대 전략 15개 전략과제를 선정해 35개 세부실천과제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주택관리팀을 도시재생, 주거복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주거복지처'로 승격시켰으며, 사장 직속의 '혁신인권실'을 독립기구로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 및 혁신 경영을 위한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정, 비리를 근절하는 '원아웃제'를 실시하며, 사장 직속 핫라인을 구축해 직원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임대주택사업의 연장선인 주거복지서비스에서 시민의 주거안정 파수꾼이 돼 다양한 주거복지 고민과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양극화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해 부문별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및 시설물 관리 위주 서비스에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및 공간조성, 공동작업장, 주거약자 긴급 입주지원 서비스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신설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또 1인 가구, 대학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대상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7000세대를 2025년까지 연평균 1000세대씩 공급한다.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주역, 송암-본촌산단 및 전남대 주변, 동구 동명동, 남구 사직동-양림동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 모델도 구상하기로 했다. 향후 공기업 제안형 뉴딜사업을 발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재생사업 수익모델 등은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공익성 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이익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난 10월 취임과 동시에 경영안정화계획 수립에 착수한 노경수 사장은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광주다운 도시재생·주거복지로 혁신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4급 전보 인사

광주시는 민선 7기 조직개편과 공로연수 등으로 인사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40명 규모의 4급(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30면>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급 1명, 4급 19명, 5급 43명, 6급 73명, 7급 46명, 8급 5명 등 총 187명을 승진 결정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4급은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 ▲일자리정책관 오영걸 ▲교통정책과 박갑수 ▲평가담당관 김세훈 ▲여성가족정책관 박현미 ▲총무담당관 안기두 ▲행정정보담당관 이상용 ▲법무담당관 채경기 ▲회계과 김성배 ▲청년정책과 손옥수 등이 선임됐다. 승진은 후보자 명부서열을 중심으로 업무 성과, 여성 공무원 우대, 지난 인사 시 1배수 내 승진 탈락자 배려, 실급 인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장기교육 대상자는 국방대학교 이정석, 세종연구소 정동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주형·이승철·배광춘·이상재·이한국, 미국 캔터키대학 송권준, 행정안전부 전출 이재교 등이다. 이 밖에 조만호 시립민속박물관장, 김철승 자치행정과장 등 1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오광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실국장·부단체장 승진·전보인사

전남도는 박봉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을 동부지역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실국장·부단체장·일부 준국장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30면>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균형에 중점을 두고 공로연수·명예퇴직 등 결원 직위에 후임을 인선하는 최소한의 인사를 실시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동부지역본부장에 박 담당관이 승진 발령됐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에 김양수 기업도시담당관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획관리국장(파견)에 홍영민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승진 임용됐다. 주순선 한전협력관과 소영호 비서실장, 박현식 완도부군수는 승진과 동시에 교육훈련과정에 파견됐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에는 전동호 자연재난과장이, 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에는 배유례 도립도서관장, 해양수산기술원장 직무대리에는 오광남 해양수산기술원 서부지부장이, 전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에는 조용의 담양부군수가 직위 승진했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는 강효석 광양경제청 행정개발본부장이, 도민안전실장에는 최중선 행정자치국장, 일자리정책본부장에는 김신남 경제에너지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교육과정 파견에서 돌아온 이상현 부이사관은 경제에너지국장, 정찬균 부이사관은 보건복지국장, 서은수 부이사관은 농축산식품국장, 임재영 부이사관은 자치행정국장에 보임됐다.

준국장급인 대변인에는 안병욱 강진부군수, 비서실장에는 김경호 화순부군수를 발령했다.

부단체장 인사는 순천부시장에 김병주 일자리정책본부장을, 담양부군수에 고병주 세정과장을, 화순부군수에 최형열 대변인을 발령했다. 강진부군수에는 이건설 에너지신산업과장을, 해남부군수에는 강형석 의회사무처전문위원을, 영암부군수에는 손점식 행정지원과장을, 완도부군수에 정석호 문화예술과장을 인선 발령했다. 전남도는 과장급 이하 후속 인사를 1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신임 실·국장 프로필

최종선 도민안전실장	성실하고 합리적이며 온화한 성품과 솔선 친화형 리더십으로 상하 계층간 신뢰가 두텁다. 해양수산·경제과학·자치행정국장을 두루 거쳐 지방행정 전 분야에 밝다.	
▲합평(54) ▲경희대, 행시 36회 ▲자치행정국장, 여수부시장		
김신남 일자리정책본부장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췄다. 전략산업-에너지신산업 등 지역경제의 전망을 꿰뚫고 있어 일자리정책 책임자라는 평.	
▲해남(54) ▲연세대 경영학과 ▲경제과학국장, 곡성부군수		
안상현 경제에너지국장	대표적 기획통으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 등을 설계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꼼꼼한 일처리로 정부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	
▲순천(52) ▲한양대 행정학과 ▲보건복지국장, 정책기획관		
정찬균 보건복지국장	지방고시 출신의 대표주자.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에 기여했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정책에 성과를 냈다는 평.	
▲나주(54) ▲전남대 행정학과 ▲일자리정책실장, 장성부군수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	지방고시 1회 출신으로, 저서 '농업혁신과 공동체 선'을 발간한 농업 전문가. 선진국 최신 정보에도 밝아 전남농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광양(49) ▲서울대 농업교육과 ▲정책기획관, 장흥부군수		
임재영 자치행정국장	온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성품으로 조직 내 신뢰가 두텁다. 깔끔한 일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례(57) ▲전남대 행정학과 ▲경제과학국장, 보성부군수		
박봉순 동부지역본부장	역동적인 추진력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운영으로 후배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휘관.	
▲영암(58) ▲광주대 행정학과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화순부군수		
김양수 광양경제청 본부장	탁월한 업무추진력으로 조직내에서 존경받는 지휘관. 성실한 스타일로 평평이 나 있다.	
▲합평(59)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기업도시담당관, 영암부군수		
전동호 건설교통국장 직대	토목·건설 전문가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며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간 신뢰가 두텁다.	
▲영암(56) ▲조선대 토목공학과 ▲자연재난과장, 광양경제청 개발부장		
배유례 공무원교육원장 직대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조직 내 리더십이 강하고, 여성공무원 사이에 신뢰가 두텁다.	
▲화순(59) ▲전남대 독어독문과 ▲도립도서관장, 세정과장		
오광남 해양수산원장 직대	온화한 성품과 조용하고 꼼꼼한 일 처리로 평이 난 '해양수산 정통파'.	
▲강진(59) ▲여수대 양식학과 ▲해양수산기술원 서부지부장, 해양수산부 파견		
강효석 감사관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품에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학구파.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 하위권을 헤매고 있는 전남도 청렴도 끌어올릴 적임자.	
▲목포(51) ▲서울대 행정학 석사 ▲광양경제청 행정개발본부장, 일자리정책지원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함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
투명한 전력정보 공개
친환경 전력상품 개발
행복한 지역나눔 실천

그 중심에 항상 **전력거래소**가 함께합니다.

smart KPX 전력거래소
KOREA POWER EXCHANGE